

| 해외산업간호정보 |

미국 샌프란시스코 General Electric사의 한국인 산업전문 간호사의 활동 현장



채 덕 희 / General Electric 산업간호사

2007년 초 남편의 미국지사 근무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을 때에는 15년 동안 삶의 전부와도 같았던 직장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산업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지원으로 산업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사업장이었고, 미국에서 산업간호사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 컸었다. 미국에서의 첫 1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나갔지만, 이내 허전함과 뭔가 해야 할 것만 같다는 나의 '직업병' 때문에 RN시험을 보게 되었다.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이력서를 보냈는데, 거짓말처럼 바로 다음날 연락을 받고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General Electric(GE)의 경우, 담당 EHS manager, manager, iness site 와 일대일 면접 후 GE 그룹의 환경/보건/안전 부문을 관리하는 Nurse managers, Medical Director, EHS leader와의 전화 인터뷰 등 총8차례 이상의 면접을 걸친 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미국 산업간호사 생활은 이렇게 기대를 넘어서는 행운과 기회로 찾아왔다.

채용 공고에 소개된 OHN의 업무직능을 간략히 요약하면(표1) 한국의 산업간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치면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과 새롭게 알아야 할 것도 많음을 알게 되었다.

〈표1〉 미국 GE사의 산업간호사의 업무

- 업무상 또는 개인 상해/질병에 대한 primary care
- 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예방을 위한 사고 조사 활동
- 적절한 치료와 조기 업무 복귀를 위한 추후관리
- 업무상 또는 개인 상해/질병에 대한 case management
-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
- OSHA records 및 근로자 의무기록 관리

OHN은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유일하며 일차적인 medical resource이기 때문에 질병과 상해에 대한 primary care 뿐만 아니라, Workers Compensation, Short Term Disability, Long Term Disability, Family Medical Leave Act 등과 같은 업무상 또는 개인 상해/질병과 관련된 제도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미국은 주마다 그 기준과 운영 방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근로자가 여러 주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업주가 여러 보험 플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규모가 큰 기업은 자체적으로 보험회사를 운영하며 산재비용을 관리하지만, 워싱턴 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정부만 산재보험을 운영하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상해 근로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처음 진료는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큰 도전 가운데 하나였으며 지금도 새로운 사례를 통해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해 근로자는 재해 사실을 즉각 소속 부서관리자, EHS manager 또는 OHN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받은 관리자는 즉시 사내 환경/보건/안전 시스템에 재해 유형, 발생 일시, 상해 부위, 재해의 심각성, 원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작성하게 된다. 이 내용은 해당 관리자, 인사 담당자, 사업단위 최고 관리자 및 EHS leadership team (몇 개의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며 분야별 전문영역이 있음)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고 사고조사가 시작된다. 특히 해당 재해로 인해 1일 이상의 병휴가가 발생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재해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회의가 소집된다. 여러 지역에 담당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회의는 대부분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례로 근로자가 부품배달을 담당하던 차량 운전자를 도와부품을 운반하던 중 요추 염좌가 발생하여 병휴를 하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부품이 배달되는 장소 및 이후 운반절차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해당 업무에 대한 안전한 절차를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공포하였다. 여러 사례를 경험하며 느낀 점은 집요하리만치 “Root cause analysis”에 집중한다는 것과 단위 사업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산재 현황과 안전보건 위협요인들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업무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OHN은 근로자의 상해가 간단한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재해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게 된다. 조기 업무복귀를 위한 간호중재는 이 때부터 바로 시작된다. OHN은 근로자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치료경과와 functional abilities를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 EHS manager,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job accommodation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종의 경우 job accommodation의 제한점도 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최적의 modification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GE에서는 변형 근무 또는 경 근무 제도라고도 불릴 수 있는 “Transitional Work Policy”를 제정하여 관련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업무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OHN은 transitional work으로 복귀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근무로 인해 상해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정상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발생한 산재 근로자를 관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온타리오 주의 경우 병휴 발생 12주 경과 후에도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산재담당부서에서 인간공학전문가, Return to Work Specialist를 작업현장에 파견하여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업무복귀를 위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전문가가 제시한 공학적, 관리적 개선 및 개인보호구를 제공하고 이행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접수되고 의사의 진료를 통해 상해 또는 질병이 진단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무 복귀까지의 예상 기간 및 산업 재해 최종 종료 시점까지의 예상 비용이 바로 책정된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비용으로 환산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재해 예방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 같다. GE의 경우 각 사업단위 별 Nurse manager 주관으로 매주 현재 진행 중인 산재가운데 치료 또는 업무 복귀가 지연되거나 비용 발생이 큰 사례들을 중심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미팅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촉매 역할은 물론 각 사업장 OHN에게는 Nurse manager의 조언도 구하고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OHN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들의 현황 및 잠재적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case management 과정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차츰 해당 사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로서 필요 시 산재보험회사의 claim adjustor를 비롯한 관련 담당자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를 주관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연, 운동, 건강한 식습관, 비만관리 등이 주요 목표가 된다. 미국에서는 사업주가직원들의 의료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부담이 매우크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이비용과 직접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의 일례로 우리 사업장에서는 매년 “Health Fair”를 개최하는데, 이때인근의 medical clinic, 의료보험회사, 유기농 식품판매자, fitness center, 척추 전문 의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건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도 한다. 이들 지역사회 단체는 별도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도 기꺼이 참여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활동을 일종의 축제를 진행하듯이 운영하는 것도 흥미롭다.


안전 보건 교육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외에는 대부분은 Web-based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진다. 매년 근로자들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배정되며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OHN은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외에도 GE에서 매년 개최하는 산업보건세미나를 수료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는 미국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다. 필자도 2008년 보스톤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에 산삭감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OHN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여명의 GE OHN이 참석하였다. 이 가운데 외국인 OHN은 중국인 간호사와나 단 둘 뿐이었으며, 그나마 중국인 간호사는 중국 상해에 위치한 GE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임상과는 달리 외국인 간호사의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교육 내용도 훌륭했지만, 대부분이 single nurse unit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지역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OHN들과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욱 즐겁고 뜻 깊었던 것 같다.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경험으로 미국 OHN 활동을 소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OHN으로서 현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권유에 제한적이고 부족한 경험이지만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출근 첫날이었다. 당연히 짧은 기간이라도 일대일 OJT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주어진 것은 텅 빈 사무실에 책상, 전화, 컴퓨터 그리고 3권의 업무 매뉴얼이 전부였다.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 동안 간호사가 없었던 곳으로 GE에서 인수한 후 GE의 EHS기준에 따라 OHN을 채용하고 의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곳이었다.

처음 몇 일은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당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매뉴얼과 씨름하고 전화, 이 메일로 하나씩 물어가며 의무실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형적인 것은 자리 잡아 갔지만, 전체 그림을 모른 채 퍼즐 조각들만 쥐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미국 OHN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OHN-S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과 유사한 자격조건이 필요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American Board for Occupational Health Nurses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시험은 컴퓨터로 치러지며 약 150-160문제가 출제되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즉 SOAP에 따라 어떻게 결정 또는 실행해야 하는지 묻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내내 문제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긴장하고 고민 해야 했다. 정답이 75% 이상인 경우 합격되며, 잠정적인 결과는 시험 당일 바로 알 수 있다. COHN-S 자격을 취득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 동안 뜬 구름처럼 알고 있었던 정보와 지식들이 준비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업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과 산업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채용 시 COHN 자격을 요구하거나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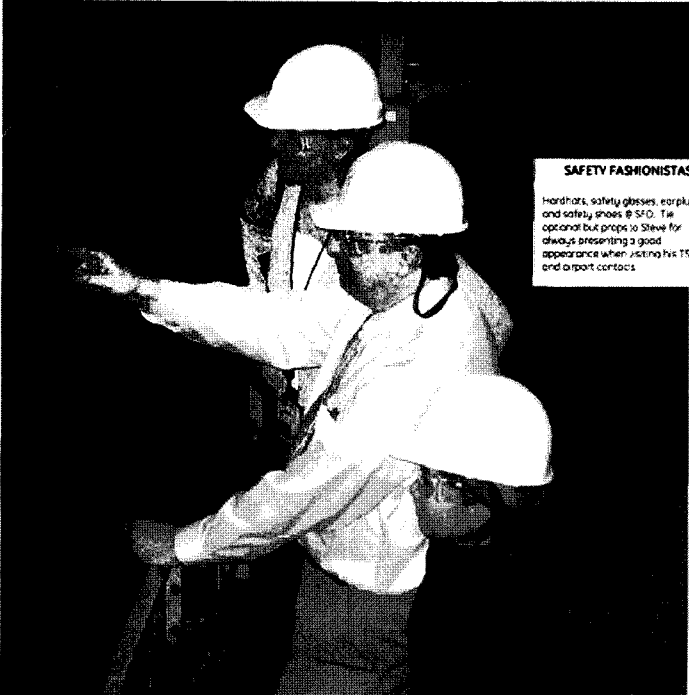
끝으로 언어와 미국에서의 경험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OHN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믿음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Nurse manager, Williams와 우리 사업장의 EHS Eric Nielsen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Mitzi의 경우 Oregon 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만날 기회조차 없었지만, 근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는 상사이며 가장 친한 친구(사실 그녀는 65세가 넘었다)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해결이나 이메일 조차 소홀히 하지 않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들을 통해 따뜻하고 인자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다. Mitzi와 Eric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03/26/09

HEADS UP @ SFO!*



SAFETY FASHIONISTAS

Hard hats, safety glasses, earplugs and safety shoes @ SFO. The optional but props to Steve for always presenting a good appearance when visiting the TSA and airport contacts.

L to R: Monica, Steve and Duck Hee. Steve pointing out potential safety hazards @ SFO. Monica Carsten is a member of the GE EHS Leadership team who visited Newark and SFO in order to assist with improvements to our safety program.

"LOW CLEARANCE" @ SFO

Hard hats are helping to prevent head inju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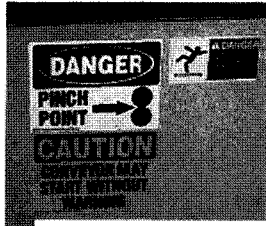
NEAR MISS REPORTED @ SFO

Earlier this month a "near miss" head injury was reported. Duck Hee is glad there was no injury because a hard hat was being worn - PPE WORKS

• HEADS UP

ALL AIRPORT ENVIRONMENTS REQUIRE A "SAFETY FIRST" MINDSET

There are moving conveyors, pinch points, eye hazards, etc. - REMEMBER TO WEAR PPE



SAFETY FIRST @ GE

첨부한 그림은 우리 사업장 EHS manager가 제작해서 게시한안전보건 포스터 가운데 하나이다.